국내
긴급시황

2025. 11. 18.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투자 심리 위축되며 하락

AI 버블 우려와 증시 비관론 확산
12월 금리 인하 관련 연준 내 의견 차 지속

KEY DRIVER

- 금일 코스피는 3.32%, 코스닥은 2.66% 하락했습니다. AI 버블 우려와 낮아진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시 조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아마존이 AI 투자를 위해 15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알파벳, 메타, 오라클에 이어 아마존까지 대규모 채권 발행에 나서면서 AI 기업들의 현금흐름 및 재무 구조 악화 우려가 재차 불거졌습니다.
- 둘째, 월가에서도 증시 비관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CEO는 주식과 채권이 고평가 상태이며, 다음 금융 위기는 사모 대출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벤처 투자자이자 페이팔·팔란티어 창업자로 유명한 피터 틸이 엔비디아, 비스트라 등 AI 기업들의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도 AI 거품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 셋째,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내 의견 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12월 인하와 관련한 직접적인 의견을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물가와 고용 위험이 모두 존재하여 금리 인하를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고용 둔화로 인해 12월 금리 인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준 내 의견 분열로 금리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우려들이 완화 혹은 심화될 수 있는 이벤트가 임박한 점도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높였습니다.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에는 엔비디아 실적과 10월 FOMC 의사록, 같은 날 밤에는 미국 9월 고용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 펀더멘털의 훼손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이 최근 증시 조정의 주요 요인인 만큼, 과장된 우려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 구조는 건전하며, 이들이 발행한 회사채의 수요는 견조한 상황입니다. 저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트럼프의 식품 관세 철회로 물가 압력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 1일부터 연준의 양적 긴축(QT) 종료로 유동성 환경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셧다운으로 지연됐던 미국 경제 지표 발표 또한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며 불확실성은 완화될 전망입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